meritz

Transport Valuechain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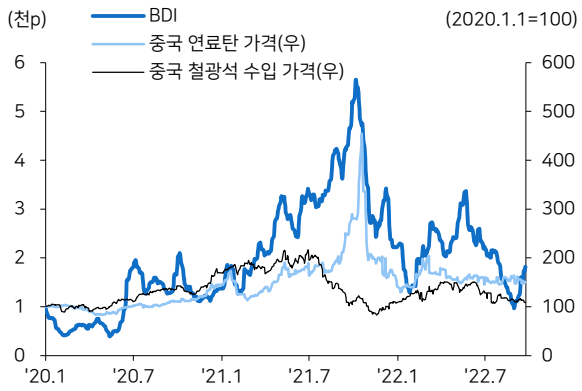
2022. 10. 4 (화)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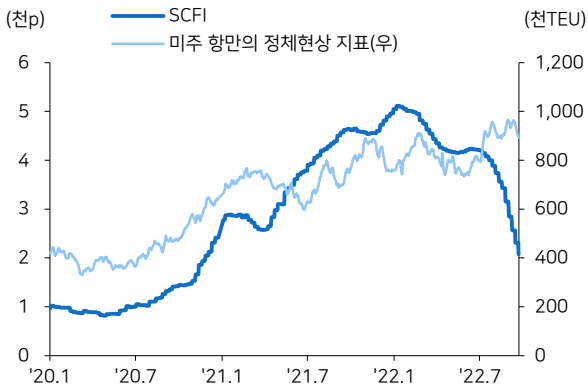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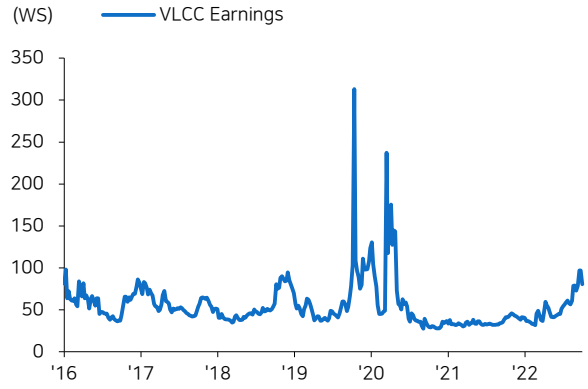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788.0p(+2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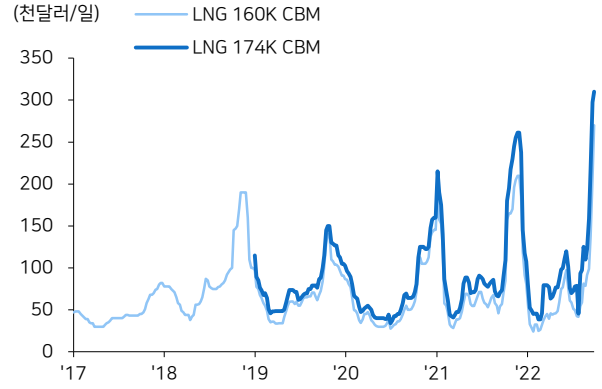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923.0p(-149.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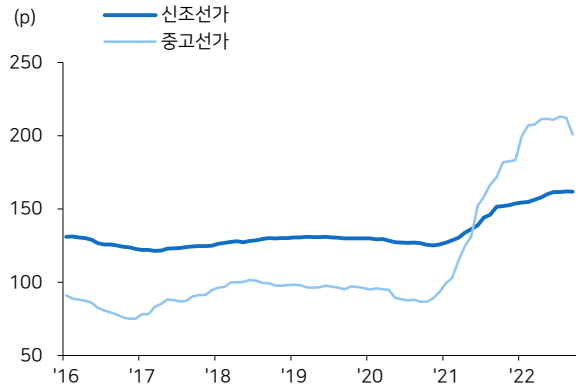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0.4p(-16.7p WoW)



LNG Spot 운임 270.0p(+62.5p WoW) 310.0p(+12.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3p(+0.1p WoW) 201.0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19.1p(+3.3p DoD) 79.6p(+0.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II 시행되면 VLCC 추가 15척 더 필요

2023년 1월 1일부터 CII(선박탄소집약도지수)가 시행되면 현재 글로벌 VLCC 선대에서 15척이 퇴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도됨. CII 등급제는 매년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선박에너지 효율에 따라 A부터 E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임. 선박들이 운항속도를 줄이며 연간 톤마일 기준 6척이 사라지고 9척은 해체후보가 된다고 설명함. 최근 몇 년간 신조선 발주가 뜸했던 VLCC 글로벌 오더북의 33%가 감소한다고 언급됨. (선박뉴스)

탱커 S&P지수 상승세

현재 탱커 S&P 지수는 2009년 2월 고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도됨. 9월 30일 기준 전주대비 1% 상승한 59,600p를 기록함. Nordic American Tankers의 2003년산 Suezmax탱커는 브로커 산정가격보다 비싼 2,100만달러에 매각되었는데, 이는 향후 선가가 더 오를 것을 시사한다고 언급됨. 7개월전 VesselsValue에서 2,400만달러로 산정한 2011년 건조된 105,525DWT급 선박은 3,500만달러에 매각되었다고 언급됨. (선박뉴스)

H-Line adds three more LNG-fuelled car carrier newbuildings in China

H-Line해운이 중국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GSI)에 LNG 이중연료 PCTC 3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8,600CEU급으로 척당 약 1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2024~2025년 사이 인도될 예정임. 기존에 주문했던 4척을 포함해 발주된 7척 모두 현대글로비스와 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한 선박으로 추정된다고 언급됨. (Tradewinds)

Middle East fuel needs will turn tanker demand from dirty to clean, says BRS

2023년 정제유 시장이 변화하며 중동지역 탱커수요는 원유운반선에서 화학제품운반선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도됨. BRS는 2023년 전체 탱커 수요는 각각 증가하나 원유운반선 수요를 화학제품운반선이 일부 대체할 것으로 언급함. 신규 정제소가 가동을 가속화하며 하반기에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 국가의 원유 수출량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언급됨. 중동지역 원유수출량의 80%는 VLCC가 수송해 VLCC 시장 타격이 제일 클 것으로 언급됨. (Tradewinds)

TotalEnergies targets sanction date for new Angola FPSO project

TotalEnergies가 앙골라 Cameia-Golfinho프로젝트를 2023년초 시작해 2026년 첫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됨. 기존 회사측이 제시한 100,000BOEPD(Barrels of Oil Equivalent Per Day, 일일 배럴생산량)보다 적은 약 70,000BOEPD를 생산할 것으로 언급됨. 그럼에도 연간 약 5억달러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언급됨. 한편, TotalEnergies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상 평균 비용은 BOE당 4달러 이하로, 2023~2026년 연간 수익은 유가 90달러 기준 15억달러, 유가 50달러 기준 10억달러 수준일 것으로 설명함. (Upstream)

대한항공 · 진에어 `하늘길 동맹`… 국내선 공동운항 10개로 확대

대한항공이 진에어와 오는 12일부터 국내선 공동운항 노선을 늘리고 '시너지 효과'확대에 나선다고 보도됨. 지난 5월 처음으로 국내선 4개 노선 공동운항을 시작한 데에 이어 6개 노선을 추가하려는 방침임. 공동운항은 상대 항공사의 일정 좌석을 회사의 편명으로 판매해 운항편 확대 효과를 거두는 제휴 형태임. 공동운항 노선 중 운항편수는 김포~제주노선이 12편으로 가장 많음. (디지털타임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